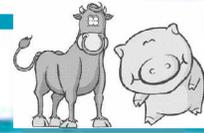


소· 돼지 가격전망



소

당분간 초강세



새해 들어 산지 소 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산지 소 값이 이처럼 호조를 보이는 것은 설

빙절 특수를 앞두고 유통업자들이 불량 확보에 나서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소 값의 상승은 설 빙절을 앞둔 일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올해는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 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농가들의 번식 의향이 높아져 가임 암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지연으로 시판 시기가 불투명해져 소 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 농가들이 시장 동향을 관망, 존하를 늦추고 있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소 값 강세 현상은 앞으로 지속되기보다는 곧 조종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설 빙절 특수가 지나고 미국산 쇠고기까지 본격적으로 수입될 경우, 소 값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 송아지 생산 잠재력을 나타내는 가임 암소가 늘어 국내 한우 사육 마릿수가 늘고,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될 경우 쇠고기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나친 기대심리로 소 값 추이를 관망하기보다는 계획대로 정상 출하와 고급육 생산에 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돼지

소폭의 등락 속에 안정세 유지

돼지 값이 상승세의 안정된 흐름 속에 3,400원비를 족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국내산 돼지고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 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산 돼지가격이 지금까지런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농장에 만연한 각종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 증가로 돼지의 출하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정부의 통제에 따르면 돼지의 사육두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대체 소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급상승한 한우 가격으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 판매가 다른 육류로 이탈하지 않는 것도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돈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도 김영단체에서 세차례에 걸친 배문제로 인해 당분간은 수입이 어려운 상태로 상반기에는 국내 시장 유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 소비량이 20%를 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에 우리나라 최대 빙절인 설을 앞두고 있다. 어려운 경제이건 속에서도 국내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함을 유지·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돼지의 소모성 질병을 줄여 국내 돼지의 존하 불량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미트뉴스 제공>